기본권리보장-군 민주화 시급석

기획특집 한국의 軍〈3〉-군 민주화·중립화를 위한 노력

Ⅰ. 서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군의 정치적 중립의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세인의 입에서 입으로 표류하고 있는 이 문제는 실상 때가 되면 나타나는 '간헐단 사건'처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을 뿐이다. 과거 매시기마다 바다 유령처럼 수면위를 떠 올라 다녔던 군의 정치적 중립의 문제는 이를 제기하고 있는 각자가 자신의 구미에 맞게 어떠한 유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 사실이다.

암밀한 의미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 이는 단지 각 정치 세력에 있어서 상호간의 협의관계를 규정짓고 있을 뿐이다. 오랜 세월 군대를 볼모로 철권통치를 휘둘러온 정치군부가 14대 총선에서의 군부재자 투표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적반하장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소리높여 외쳐댔다고 하는 사실은 이를 너무도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의 문제에 있어서 한가지 강과할 수 없는 사실은 그동안 이를 제기해왔던 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급급하여 군대의 본질적인 문제(군의 민주화와 병사들의 권리, 인권의 실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유령은 매시기 마다 수면위에 떠올라 세인의 입안에서만 맴돌다가 사라져갈 뿐이었다.

Ⅱ. 본론

군의 정치적 중립은 군민주화 실현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의 문제는 확실히 군의 민주화와 병사들의 권리·인권의 실현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만이 그 내용과 실천에 유의미성을 갖는다.

정치군부가 제기하고 있는 군의 정치적 중립이란 병사들의 정치·사상의 권리와 양심의 자유및 인권을 철저히 제약하는 독소적인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그들은 근대화 문제가 사회 문제화되는 것을 무조건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군의 기본 속성인 폐쇄성을 더욱 강화시키려 하고 있다. 군대내의 일관된 편향으로서 군인은 어떠한 이유에서건간에 정치적인 행동이나 발언을 하면 인된다고 하는 것, 심지어는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그러한여 정치와는 일절 무관해야 한다는 주의주장은 실제로 정치군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러한 류의 정치적 중립은 주로 병사들을 사회로부터 차단하고 그들의 기본권리를 통제하며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부정비리의 폭로조차 정치행위로 간주함으로써 병사들의 투쟁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심지어는 병사들이 투표하는 것조차도 정치행위로 간주함으로써 병사들의 투표권 박탈이라는 웃지 못할 주장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아당 등 각 정치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군의 정치적 중립은 군과 관련한 정치적 사안이 각 세력간에 첨예한 대립으로 표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의 실현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0년 10월4일,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대국민 폭탄사찰 폭로이후 제기되었던 군의 정치적 중립의 문제는 노태우정권과 김대중씨의 정치적 타협속에 당시 정국의 최대 현안이었던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귀결되었으며, 3·24총선 이후에는 군 부재자 투표시의 공정성보장의 문제로만 국한되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병사들을 '표찍는 기계'로만 바라보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표라도 더 긁어 모으려고만 하여 제기되고 있는 군의 정치적 중립의 실현은 발전적인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새롭게 검토되고 있다. 고질화된 한국군의 사회통제기능 및 사회억압기능을 해소하고, 군을 자신들의 정권 창출 말아 처리해온 한국군을 국민의 군대로 전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이병의 병사들이 지배권력의 부당한 명령과 그에 대한 노예적 굴종에서 벗어나 군인으로서의 자주적 삶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최소한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저항권과 거부권이 보장되고 이로 인한 부당한 처우나 보복적인 탄압은 금지되어야 한다.

병사들도 자유롭게 신문(한겨레신문, 말지 등을 포함한 각 일간지, 월간지, 시사잡지 등등)을 구독할 수 있어야 한다.

교도소의 재소자들도 자유롭게 구독하고 있는 신문을 병사들만 못브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병사들이 올바른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각 당의 공약이나 후보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하며 현재의 사회 분위기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도 일상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한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 병사들에게 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 하는 것. 군당국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병사들의 이익향상을 위해서도 이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이상의 이유에서 군부재자 투표 부정의 해소는 군의 민주화, 중립의 문제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실로 중요하다.

최근 선관위는 '선관위 직접 관리하의 영의 우편 투표'형태를 골자로 하는 군부재자 투표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민주당, 국민당 및 공선협 등도 이같은 개선방안에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같은 개선방안에는 문제가 많다.

군 부재자 투표 부정의 해소란 병영의 민주화, 군의 민주화 속에서만 올바른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군 부재자 투표부정의 문제는 군의 반 민주적인 구조속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모순의 지양없이는 단지 제도적 보장에서만 그 본질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병사들의 투표권 행사는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 병사들의 권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병사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는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군에 대한 국민적 통제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새롭게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난 14대 총선의 군 부재자 투표 부정행위에 대한 애국적이고 양심적인 병사들의 광범위한 대중투쟁(이지분 중위 이외에도 약 2백여명의 병사들이 투쟁에 동참했다)은 한국군의 역사상 초유의 일로, 이는 군 당국조차도 군의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병사들의 투쟁은 병사운동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주고 있는 동시에 군의 문제가 병사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국적으로는 전국민의 문제임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나 신변의 위협을 무릅쓴 병사들의 외로운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각 정당이나 사회단체들의 내용은 극히 미약하거나 자신의 이익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졌다.

전 국민 차원에서의 군 민주화 운동 및 병사운동에 대한 지지, 지원연대는 앞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의 실현을 위한 역사적 과제로서 우리 앞에 다가서고 있다. 국민과 애국적인 병사들과의 굳건한 연대. 이는 양심과 사상, 정치적 권리의 억압속에서 잘못된 군대의 논리와 입무에 순응함수 밖에 없는 병사들을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관건이 될 것이며, 국민의 군대를 향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연 성 흠

〈윤석양 후원사업회 정책실장〉

〈 글 싣는 순서 〉

1. 한국군에 대한 일반적 고찰
2. 군축의 가능성과 실현방도
3. **군 민주화·중립화를 위한 노력**
4. 적극적인 군 생활을 위해

◇군 부재자 투표부정도 군민주화속에서 올바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지난 90년 보안사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이병)

군의 참정권 권력유지에 악용돼

'폐쇄' 극복한 사상의 자유, 인권실현의 척도

군의 정치적 중립의 실현속에서 군대는 특정세력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악용될 수 없다. 또한 군인들의 정치활동도 자유로울 수 있다. 이 땅의 군인들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당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정당에서의 활동도 군대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악용하지 않는 한 제약받아서는 안된다.

군의 민주화와 병사들의 권리, 인권의 실현을 위한 군의 정치적 장방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군의 정치적 중립의 실현속에서 군대는 특정세력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악용될 수 없다. 또한 군인들의 정치활동도 자유로울 수 있다. 이 땅의 군인들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당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정당에서의 활동도 군대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악용하지 않는 한 제약받아서는 안된다.

군의 민주화와 병사들의 권리, 인권의 실현을 위한 군의 정치적 과 그 정권유지를 위해 악용해온 정치군부를 척결하는 일은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지배권력의 폭압통치를 도지 모순에의 회피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선관위의 개선방안은 군 부재자 투표 부정의 해소를 병영과 분리해서 사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 민주화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선방안에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혈태 변화만 있을 뿐 병사들의 주권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그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병사들의 주권이 올바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치적 권리가 철병영의 민주화, 군의 정치적 중립의 실현속에서 영의투표가 아닌 영내투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영내투표와 관련하여 '군내참관인 제도'는 긍정적인 토대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군당국은 '군내 참관인 제도'에 대한 반대이유로 군사기밀의 보장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이는 군이 준수해야 할 사회적 보편성의 문제와 함께 새롭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 본다.

군사기밀 보호법이 군의 패쇄적 속성을 강화하고 군의 부정비

歲時錄

꺾여진 '사랑의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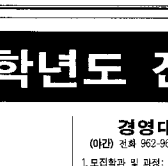
옛 우리네 부모님들과 스승들은 자식을 꾸짖음에 있어 지혜를 보여주었다. 자식을 꾸짖어야 할때에는 자식에게 회초리를 준비하라 일러, 자식이 회초리를 준비해오면 자식의 잘못을 조목조목 스스로 이르도록 하여 매를 쳤던 것이다. 우리 부모들이 매를 치면서 자식에게 회초리를 준비하라 일컫은 까닭은 회초리를 준비하는 동안 자신의 울화와 감정을 다스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부우치도록 하기위한 배려였다. 그때 그 회초리는 자식에 대한 애정과 엄격함이 함께한 '사랑의 매'였다.

그러면 오늘날 세인이 느끼는 '사랑의 매'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지난 90년 10월 수업도중 시험성적이 나쁜 학생을 때려 6주의 상해를 입힌 한 교사에게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를 계기로 교사의 체벌이 많은 문제의식 속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즉, '교사의 체벌은 어느 선까지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대두된 것이다.

이에대해 교육의 질서를 바로잡고 효과적으로 통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다는 찬성입장과, 학생들에게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주어 그 후유증이 막대하기 때문에 또한 체벌만이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다는 반대입장이 '학생을 위해서'라는 궁극적으로 공통된 목적속에서 나타났다.

이를 토론하기에 앞서 지금의 '사랑의 매'에 과연 예전의 애정과 엄격함이 배여있



나 하는 의문점이 든다.

사실 우리의 교육구조속에서는 힘든 일이다. 먼저 학생들 60여명 정도가 한반으로 묶여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 즉 교사1명 대 60여명의 비율로 학생들이 관리되기 때문에, 잦은 대화와 관심에서 나온 '사랑의 매'보다는 통솔을 쉽게 하기 위한 '효율의 매'를 들기 쉽다는 것이다.

또한 성적향상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 버린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로 말미암아 교사는 자신의 제자를 성적순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판단속에서는 '사랑의 매'가 존재한긴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교사들의 체벌은 예전 우리 선조들의 애정어린 매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체벌을 받는 학생들과 그 학부형들의 태도 역시 많은 변천을 보여준다. 지녀에 대한 과잉보호와 교권에 관한 경시풍조 때문에 '사랑의 매'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지난 17일 제자에게 체벌을 가한 후 그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여교사의 자살은 우리의 어두운 교육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많은 대화와 깊은 이해속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진정 참된 삶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고자 했던 우리의 선생님들이 삭탄한 교육환경속에서 조금씩 사장되어 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옛 우리네 부모님들이 자식들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게끔 했던 그 애정어린 '사랑의 매'가 이제는 우리 선생님들의 손에 쥐어져야 하지 않을까.

현장취재 서울캠퍼스 학내총선 2차유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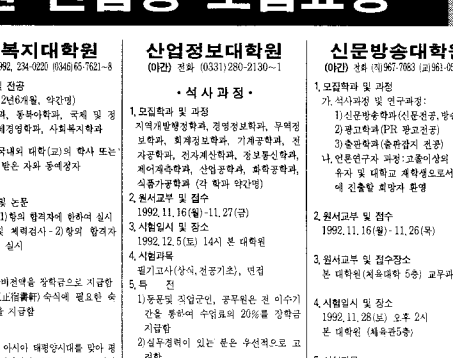
지난 30일 오후 1시 노천극장에서 열리기로 한 총학·총여학생회 선거 2차 유세가 30분이 지연되어 실시되었다.

지연이유는 일반학생들이 유세장인 노천극장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백50명가량의 학생들이 참석한 1차 유세때보다는 약 50명가량의 학생이 더 참석하였으나 서울 캠퍼스 전체학생수를 감안한다면 너무나 저조한 참석율이라 말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과열및 소비지향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나 막상 선거분위기 조성이란 부분은 손도 못 대고 있다.

각 후보자들의 경우도 일반학생들을 합동유세장에 끌어들여 자기의 정강을 발표하기 보다는 감의실 유세를 통한 개별적인 접촉에 신경을 더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서동국 記者〉



1993학년도 전기 경희대학교 각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일반대학원
전화 961-0122~3

Ⅰ. 석박사 과정
1. 모집과정 및 학과:
• 국어국문학과 • 영어영문학과 • 사학과 • 철학과 사회학과 불어불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서반아어학과 • 법률학과 • 행정학과 • 정치학과 • 신문방송학과 • 경제학과 • 경영학과 • 무역학과 • 회계학과 • 생활학과 • 지리학과 • 물리학과 • 화학과 • 수학과 • 가정학과 의상학과 식품영양학과 • 환경학과 • 유전공학과 우주과학과 • 의학과 • 간호학과 • 치의학과 • 한의학과 • 약학과 임상약학과 • 기계공학과 • 화학공학과 • 섬유공학과 • 전자공학과 • 토목공학과 • 건축공학과 • 원자력공학과 • 전자계산공학과 • 산업공학과 • 농학과 • 임학과 • 식품가공학과 • 조경학과 원예학과 • 체육학과 무용학과 음악학과 미술학과 요업공예학과 (• 표는 박사과정 설치학과)
2. 원서교부 및 접수
1992. 11. 9(월) -1992. 11. 13(금)
3. 시험일시 및 장소
1992. 11. 28(토) 오전 10시 본 대학원
4. 시험과목
가. 석사과정: 영어, 전공, 면접
나. 박사과정: 영어, 전공, 면접
제2외국어(영문, 사학, 한의학과에 한함)
• TOEFL 시험성적: 인문, 사회, 자연, 이공학 계열 550점 이상, 예술 계열 450점 이상 취득자는 영어시험면제(최근 2년 이내 취득자)
• 본교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은 병역특례대상 기관임

Ⅱ. 학위협동 석박사 과정
1. 모집학과: 생물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수학과,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약학과
2. 원서교부 및 접수,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과목은 석박사 과정에 준함
3. 전형방법: 전공필기 시험 및 면접시험의 비율은 각 100점으로 하며 석박사 과정과 별도 사정

Ⅲ. 연구생
1. 모집학과: 석박사 과정에 준함
2. 원서교부 및 접수,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과목은 석박사 과정에 준함
3. 전형방법: 별도 기준에 의거 선발

경영대학원
(야간) 전화 962-9688, 961-0127~8

1. 모집학과 및 과정:
석사, 연구 및 최고경영자 과정
·경영학과(인사관리, 마아케팅, 생산관리, 회계학, 재무관리 각 전공)
·세무관리학과(세무관리, 세무행정, 조세정책, 조세법학 각 전공)
·노사인력관리학과(인력자원관리, 노무관리, 노동정책, 노사관리, 노동경제 각 전공)
·관광경영학과(관광자원개발, 호텔경영, 관광홍보, 시설경영 각 전공)
·산업안전관리학과(산업안전공학, 산업안전관리, 산업안전행정 각 전공)
·무역경영학과(무역경영, 무역정책, 무역관계법, 국제경제 각 전공)
2. 원서교부 및 접수
1992. 11. 12(목) -11. 18(수) 16:00까지
3. 시험일시 및 장소
1992. 11. 28(토) 14:00 본 대학원
4. 시험과목
1) 석사과정
(영어, 일반논문, 면접, 경력)
2) 연구 및 최고경영자과정
(서류전형, 면접)
5. 특 전
1) 각종 국가고시 최종합격자는 전 이수기간을 통하여 수업료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2) 수석합격자와 재학중 각 학과 성적우수자에게는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교육대학원
(야간) 961-0134~6

1. 모집과정 및 학과
1) 석사과정
교육행정, 초등교육, 국민윤리, 국어교육, 영어교육, 수학교육, 일반사회교육, 역사교육, 지리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공업교육, 전자계산교육, 농업교육, 요업공예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체육교육, 상업교육
2) 연구과정: 석사학위과정에 준함
2. 원서교부 및 접수
1992. 11. 23(월) -11. 27(금)
(09:00-17:00)
3. 시험일시 및 장소
1992. 12. 5(토) 10:00 본 대학원
4. 시험과목
1) 석사과정: 전공, 면접
2) 연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5. 특 전
1) 현직 교원은 전 이수기간을 통하여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전형에서 우대함
2)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은 자 중 소정의 전공 및 교직과목을 이수한 자는 중등학교 2급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행정대학원
(야간) 전화 962-1213, 961-0131

1. 모집과정 및 학과
가. 석사·연구 과정
1) 행정학과: 정책학, 행정관리, 안보정책, 간호행정, 병원행정
2) 도시 및 지역정책학과: 도시및 지역계획, 지방행정, 환경행정, 토지 및 주택정책
3) 사법행정학과: 사법행정
4)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보험행정
나. 행정관리자 과정
다. 지방의회지도자 과정
2. 원서교부 및 접수
1992. 11. 13(금) -11. 20(금)
3. 시험일시 및 장소
1992. 11. 28(토) 14:00 본 대학원
4. 시험과목
1) 석사과정: 필기시험(행정일반이론 및 각전공 기초분야), 면접
2) 연구과정, 행정관리자과정 및 지방의회지도자 과정 - 서류전형 및 면접
5. 현역군인, 국가공무원, 각종 고시1차합격자, 간호사, 준대학교 등문은 수업료의 20% 장학금 지급

평화복지대학원
전화 (02)233-2992, 234-0220 (0346)65-7621~8

1. 모집학과 및 전공
(석사과정, 2년6개월, 야간명)
평화안보학과, 동북아학과, 국제 및 평화학과, 국제정영학과, 사회복지학과
2. 입학자격: 국내외 대학(교)의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받은 자와 동예정자
3. 전형방법
1) 영어시험 및 논문
2) 1차면접 -1) 학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3) 2차면접 및 체력검사 - 2) 항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4. 장학제도
1) 재학중 학비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함
2) 기숙사(구교명書館) 숙식에 필요한 숙식장학금을 지급함
5. 주지사항:
1) 본 대학원은 아시아 태평양시대를 맞아 평화지향적인 국제사회의 유능한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함 2) 교수진은 국내및 국제사회의 저명한 교수로 구성됨 3) 대학원 강의는 영어로 함을 원칙으로 함 4) 21세기의 다양화, 전문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전인교육, 전문교육을 실시함 5) 전공과목에 따라 정치학, 행정학, 경영학 석사학위를 수여함 6) 본 대학원은 최적의 교육환경과 현대적 시설을 보유함 7) 전인적 인격도야를 위하여 입학후 4학기동안 심정서원에서 생활하여야 함
6. 원서교부및 접수
1) 기간: 1992. 11. 9(월) -11. 21(토)
2) 장소: 본 대학원
7. 전형기간 및 장소
1) 시험기간: 1992. 11. 26(목) -12. 2(수)
2) 장소: 본 대학원(경기도 광릉 캠퍼스)

산업정보대학원
(야간) 전화 (0331)280-2130~1

• 석 사 과 정 •

1. 모집학과 및 과정
지역개발행정학과, 경영정보학과, 무역정보학과, 회계정보학과,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계산학과, 정보통신학과, 제어계측학과, 산업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가공학과 (각 학과 약간명)
2. 원서교부 및 접수
1992. 11. 16(월) -11. 27(금)
3. 시험일시 및 장소
1992. 12. 5(토) 14시 본 대학원
4. 시험과목
필기고사(상식, 전공기초), 면접
5. 특 전
1) 동문및 직업군인, 공무원은 전 이수기간을 통하여 수업료의 20%를 장학금 지급함
2) 우정현이 있는 분은 우선적으로 고려함

• 최고경영자과정 •

1. 모집인원: ○○명
2. 입학자격
공·사기업체 최고경영자, 임원, 정부기관의 고위직임자 및 군장성,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3. 원서교부 및 접수
1992. 11. 16(월) -11. 27(금)
4.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5. 면접일시
1992. 12. 5(토) 13:00 본 대학원
6. 본 대학원 위치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 1번지

신문방송대학원
(야간) 성북 (3)967-7063 (교)961-0560~1

1. 모집학과 및 과정
가.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1) 신문방송학과(신문전공, 방송전공)
2) 광고학과(PR 광고전공)
3) 출판학과(출판잡지 전공)
나. 언론연구자 과정: 고졸이상의 학력 소유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언론계에 진출할 희망자 환영
2. 원서교부 및 접수
1992. 11. 16(월) - 11. 26(목)
3.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본 대학원(제육대학 5층) 교무과
4. 시험일시 및 장소
1992. 11. 28(토) 오후 2시
본 대학원 (체육관5층)
5. 시험과목
가. 석사과정: 영어, 전공, 면접
나. 연구과정 및 언론연구과 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경력 참조)
6. 특 전
가. 수석합격자는 수업료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나. 재학중 학과 성적우수자는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다. 본교 동문은 전이수기간을 통하여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라. 출판잡지 전공이 성적우수자에게는 방우출판장학금을 특별 지급함
마. 언론계 종사자 중 우수경력자에 한하여 특전을 부여함